



# 보도자료

(총 9매, 세부자료 불임)

배포 : 2017년 3월 2일(목)  
담당 : 홍보팀 이준형(02-760-4714)  
문의 : 시각예술부 이영주(02-760-4604)

## 예술위, <용적률 게임 :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 개최 제15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귀국전

- 한국사회의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과 한국건축의 전선을 해부
- 도시 중산층이 살고 일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근생(근린생활시설) 설계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건축가들의 도전을 집중 조명
- 한국적 도시재생, 작은 경제, 사회적 역동성에 대한 물음을 제기
- 해외에서 주목 받은 베니스 한국관을 서울 아르코미술관으로 옮겨와 국내 관람객을 위해 재구성하고 전시 확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제15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의 귀국전 <용적률 게임 :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이하 <용적률 게임>)전을 오는 3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대학로 아르코미술관에서 개최한다.
- <용적률 게임>은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미술계 행사 중 하나인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에서 지난 해 한국관이 선보인 전시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커미셔너를 맡고, 김성홍 예술감독(서울시립대 교수), 신은기(인천대 교수), 안기현(한양대 교수), 김승범(브이더블유랩 대표), 정이삭(동양대 교수), 정다운(코어건축 실장) 공동큐레이터가 기획한 본 전시는 2016년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의 전체 주제인 ‘전선에서 알리다(Reporting from the Front)’에 대응하여, 지난 50년 동안 한국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을 향한 집단적 욕망을 ‘용적률 게임, The FAR(Floor Area Ratio) Game’으로 해부했다.
-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관을 “놓쳐서는 안 될 6개 전시 (Six Not-to-Miss Shows)”, 영국 가디언지는 “도시의 보이지 않는 힘을

보여준 우아한 전시 (an elegant demonstration of some of the invisible forces shaping our cities)"라고 평가하는 등 본 전시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매체와 건축계의 주목을 받았다. 전시기간 163 일 동안 베니스 현지 한국관에는 약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 이번 귀국전은 베니스전을 재현하기 위해 제1전시실에 전시물을 그대로 옮겨오되 공간적 특성과 관객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재배치했고, 36명 참여건축가들의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영상섹션을 제2전시장에 새롭게 구축하여 전시를 확장시켰다.

□ 총 5개 영역으로 구분한 제1전시실은 용적률 게임에서 디자인 전략과 전술, 용적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그리고 사회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 도입부인 《게임의 규칙》에서는 용적률 게임의 정의, 선수, 규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용적률 게임은 건축주(소비자), 건축가/건축사(공급자), 법과 제도로 통제하는 정부(통제자)가 참여하여 게임을 벌인다.

두 번째 《게임의 양상》은 건축가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디자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다가구, 다세대, 상가주택 등 보편적인 유형과 36개 건축물의 모형, 다이어그램, 수치, 사진, 항공사진 등을 통해 살펴본다. 전시장을 구성하는 세 번째 영역인 《게임의 배경》이 한국의 도시에서 용적률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한편 《게임을 보는 관점》에서는 용적률 게임이 벌어지는 우리 도시와 거리의 풍경을 시각예술가의 눈으로 포착했다. 마지막 영역인 《게임의 의미》는 용적률 게임의 사회, 경제, 문화적 가치를 요약한다.

□ 작년 베니스 전시에 이어 이번 귀국전을 총괄한 김성홍 예술 감독은 “<용적률 게임>은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국형 소블록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고 그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귀국전은 전시와 연계하여 용적률에 얽힌 이야기를 대중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시기간 동안에는 2회의 라운드테이블 토크와 정림건축문화재단과 공동 기획한 4회의 공개 포럼 《숨은 공간, 새로운 거주》가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는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문의 : 02)760-4604. 끝.

- 붙임 : 1. 전시개요 및 내용  
2. 김성홍 예술감독 및 큐레이터 이력  
3. 2016 베니스 한국관 및 2017 서울 귀국전 참여진  
4. 전시전경 및 작품이미지 (별도 첨부)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고해상도 이미지는 [www.webhard.co.kr](http://www.webhard.co.kr)에서 ID: mac001 PW: mac001로 접속하셔서 Guest > 내리기전용 > 용적률 게임 폴더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과 정보의 개방을 지향하는 정부 3.0 구현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061-900-2215 / sybyeon@arko.or.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 전시개요 및 내용

- 사업명 : 제15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귀국전
- 전시명 : 용적률 게임 -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
- 전시기간 : 2017. 3. 3. - 5. 7 (57일간)
- 전시장소 : 아르코미술관 제1,2전시실
-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감독/큐레이터 : 김성홍 (서울시립대 교수)
- 공동큐레이터 : 신은기, 안기현, 김승범, 정이삭, 정다운
- 부대프로그램
  - 라운드테이블 토크 : 1차 (4.8 토, 11시), 2차 (4.21 금, 19시)
  - 정립건축문화재단 공동기획 포럼 : 《숨은 공간, 새로운 거주》
    - 3.11/3.18/3.25/4.1 토, 11시
- 전시문의
  - 아르코미술관 이영주 큐레이터 (02-760-4604/[young.lee@arko.or.kr](mailto:young.lee@arko.or.kr))
  - 2016년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전시추진단 정다운 사무국장 (02-6490-2774/[far.game.2016@gmail.com](mailto:far.game.2016@gmail.com))
- 전시세부내용
  - ① 게임의 규칙
    - 용적률 게임은 ‘땅-법-건물’ 세 가지 변수에 의해 만들어지며, 한 뼘의 공간이라도 더 요구하는 토지주, 건축주(소비자), 이에 부응해 건물을 짓는 개발업자, 건설사, 건축가/건축사(공급자), 그리고 이를 법과 제도로 통제하는 정부(통제자)가 선수로 참여하여 게임을 벌인다.
    - 용적률을 향한 욕망을 제어하는 한국의 법과 제도는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경직되어 민간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거나 공공이 유연하게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집고 들어갈 허점과 틈새가 많다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건축가들은 이런 상황과 조건에서 곡예사처럼 외줄을 타면서 균형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대립하는 이러한 힘들을 최적화하여 건축물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용적률 게임’이다.

## ② 게임의 양상

- 36개 건축물의 모형, 다이어그램, 수치, 사진, 항공지도를 통해 건축가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디자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전시장에 총 72개의 모형이 놓이는데 36개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공식적으로 기재된 공간과 건축가들이 찾아낸 잉여공간 두 가지로 표현했다.
- 옆에는 우리도시의 이면도로에 지어진 보편적인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배치하여, 건축가들의 작업과의 차이를 관람객이 직접 느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 ③ 게임의 배경

- 서울과 세계 거대도시의 인구수, 밀도, 집중도를 비교하고, 압축성장 과정에서의 지가상승, 공사비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율, 법과 제도의 변화에 대응한 건축물의 대형화와 양극화, 서울의 필지, 블록, 지역지구제의 특징을 단계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위해 서울 전체 63만동의 건물 중 약 60만동의 건물과 130만개의 필지를 분석했다.

## ④ 게임을 보는 관점

- 흔하고 반복적이면서 지루한 익명의 건물들을 채집하듯 먹으로 그린 강성은의 ‘남의 집’, 다가구/다세대 주택에서 오히려 서울스러움을 발굴하는 백승우의 ‘4327 시리즈’,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는 영상과 기억의 모노로그가 중첩되어 나타나며 현실과 환상을 함께 보여주는 정연두의 영상 ‘기억은 집과 함께 자란다’, 원경에서 혹은 하늘에서 신경섬이 포착한 혼성적이고 무질서해 보이기까지 한 36개의 건물의 배경이 전시된다.
- 부동산 중개사, 집수리 전문가, 흔히 ‘집장사’로 불리는 소규모 개발업자, 건축시공자, 건축사(가)와의 영상 인터뷰에서는 드러내기에 불편한 집짓기에 얽힌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았다.
- 다양한 시선에서 우리도시와 건축을 미학의 잣대만으로는 비판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건축가들이 대면하고 있는 조건과 제약, 그리고 풀어야 할 숙제가 결코 녹록치 않음을 드러낸다.

### ⑤ 게임의 의미

-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면서 최대 면적만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 투자수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소수의 토지주와 건축주들이 감지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세대의 건축가들이 홀로서기 위해 이러한 틈새시장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 현재 용적률의 게임의 수혜자는 소수의 개인이다. 건물의 사적 이익을 도시의 공적 가치로, 양의 게임을 질의 게임으로 바꿀 수 있는가는 우리 도시의 숙제이다.
- 전사에서 나타난 사례들은 전면 재개발 방식에 비해 속도는 느리지만 새로운 방식의 도시재생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순방향으로 확산되면 소규모 개발자, 시공자, 숙련공이 참여하는 작은 경제가 살아나고, 이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역동성 (social dynamics)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2. 김성홍 예술감독 및 공동큐레이터 이력

### ■ 예술감독



김성홍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전문분야 : 건축설계 및 이론

김성홍 교수는 2006년 워싱턴주립대 폴브라이트 연구교수, 2007~2009년 서울시립대 기획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을 지냈다. 2004년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부커미셔너를 역임했고, 2005년 한독 퍼블릭스페이스 포럼을 기획했다. 2007~2010년 3년 동안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탈린, 바르셀로나,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메가시티 네트워크 : 한국현대건축전’을 총괄기획하였다. 저서로는 『Megacity Network: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 (2007), 『도시 건축의 새로운 상상력』, (2009), 『길모퉁이 건축』 (2011)을 포함하여 우리 도시와 건축에 관한 책을 국내외에 출간했다.

## ■ 공동 큐레이터

### 신은기 /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조교수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다양한 건축설계 및 마스터플랜 실무를 하였으며, 사회 기술적 조건에 대응하여 건축 디자인의 유형화와 그 변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11년 20세기 중반 미국 대량생산 주택이 만들어낸 주거 문화와 이를 바탕으로 나타난 건축가들의 실험 주택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인천대학교에서 사회적, 기술적 제도와 건축 디자인에서 공공성 확보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 및 교육을 하고 있다.

### 안기현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2010년에 AnLstudio라는 디자인스튜디오를 공동 설립하여, 다양한 스케일의 작업을 시도해왔으며 2013년부터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2010년 Red dot Award에서 best of best 수상한 "Oceanscope". 호주 브리즈번 Asia Pacific Design Triennial "Lightwave", 종로 서촌에 극소주택 "몽당", 중국 광저우에 컨벤션홀 "The Suit", 신당동 근린생활시설 "다공"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MOMA에서 공동주최하는 "2014 Young Architect Program"에 최종후보였다. 서울시립미술관, 대림미술관, 소마미술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아르코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시 및 단체전시에 작가로 참여하였으며, 설화수에서 주최하는 2014 설화문화전에서 아트디렉터 및 큐레이터로 참여하였다.

### 김승범 / VW LAB 대표

서울건축과 공간건축에서 다수의 건축 설계와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카이스트 미래도시연구소에서 건축과 IT를 접목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연구전담교수를 거쳐 현재 VW LAB의 대표로 있다. 2014년 Berlin AEDS Gallery의 "Seoul : Towards a Meta City" 전시에 공동 큐레이터로 참여하였다.

### 정이삭 / 동양대 교수

정이삭은 2013년 에이코랩(a.co.lab)을 설립하고, 'DMZ 평화공원 마스터플랜 연구', '철원 선전마을 예술가 창작소', '연평부대 도서관', '마장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헬로우뮤지움 동네미술관', '동두천 장애인 복지관 문화공간 조성' 등의 사회적 건축과 공공 연구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 외에 'REAL DMZ PROJECT 2013'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은 바 있으며, 도시 미술 프로젝트인 '2015 서울서울서울'을 공동 기획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5 공공디자인대상' 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2015 It-Award' 공공환경디자인상, 그리고 '2016 따듯한 공간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 정다운 / CoRe architects 팀장

studio asylum과 massstudies에서 실무를 하였으며 지금은 CoRe architects에서 건축, 도시 리서치를 하고 있다. 도시 변화 안에서 건축물들은 각각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조사하고 이런 건축적 요소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표현할지에 대해 연구 중이다. 특히 서울에서 7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의 변화에 관심이 많다. 그동안 수집한 30년 이상 된 건축물 사진을 모아 'memoryscape' (2010)전시에 참여했고, 오픈하우스 서울 (2014) '초기아파트를 만나다' 답사, 서울시민건축학교(2015) 건축답사 등을 진행했다. 2015년에는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 SNS platform 구축을 위한 '#너머도시 #citythru' 를 기획하였다.

### 3. 2016 베니스 한국관 및 2017 서울 귀국전 참여진

-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
- 예술감독: 김성홍(서울시립대 교수)
- 공동큐레이터: 신은기(인천대 교수), 안기현(한양대 교수), 김승범(브이더블유랩 대표), 정이삭(동양대 교수), 정다운(코어건축 실장)
- 초대작가: 강성은, 백승우, 정연두, 신경섭
- 그래픽 디자인: 정진열, STUDIO TEXT
- 영문감수: Richard Enos
- 전시 스태프: 김형범, 최민정, 이우조, 도형록, 강희라, 김종울림, 곽윤재, 이정연, 박찬범, 이경재, 서정인, 심현기(모형작업 코디네이터), The Docent(영상작업)
- 홍보 및 대외협력: 한소영(밀라노), 신혜원(런던)
- 베니스 한국관 매니저: 김은정
- 귀국전 전시협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정해영, 이영주, 임서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임수연, 변서영
- 참여 건축사무소(건축가):  
건축공방(심희준, 박수정), 바우건축(권형표, 김순주), 디자인밴드요앞 (신현보, 류인근, 김도란), 아파랏.체(이세웅, 최연웅), 유.경건축 (권경은, 지정우) + 에이엔엠 (김희준), 에이엔디 (정의엽), 에스오에이 (강예린, 이치훈, 이재원), 깊은풍경 (천경환), 사이건축 (이진오, 박인영), 최페레이라건축 (최성희, 로랑 페레이라), 오비비에이 (이소정, 곽상준), 디아건축 (정현아), 조호건축 (이정훈), 아키후드 더블유엑스와이 (강우현, 강영진), 와이즈건축 (장영철, 전숙희), 디자인그룹오즈 (신승수, 임상진, 최재원), 에스에스디 (박진희), 황두진건축사사무소 (황두진), 폴리머 (김호민), 이로재김효만건축사사무소 (김효만), 유타건축 (김창균), 아르키움 (김인철), 티알유건축(조성익), 경계없는작업실 (문주호, 임지환), 인터커드 (윤승현), 로디자인 (김동진), 오다건축 (오영욱), 방바이민 (오세민), 경영위치 (김승희), 운생동 (장윤규, 신창훈), 매스스터디스 (조민석), 더시스템랩 (김찬중), 엔이이디건축 (김성우, 김상목), 에이엔엘스튜디오 (안기현, 신민재, 이민수), 오씨에이 (임재용), 삼현도시건축 (김용남)
- 카운슬러: John Peponis
- 자문단: 임재용(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오씨에이대표), 이충기(서울시립대 교수, 예술감독 선정위원), 최문규(연세대 교수, 가아건축), 박철수(서울시립대 교수, 2015 광복70주년 주택도시전 기획연구위원)

● 카탈로그 기고:

John Peponis, James PARK, Chen Feng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Marc Simmons (FRONT Inc.), Rowan Moore (The Observer),  
Peter Winston Ferretto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Julian Worrall (The University of Adelaide),  
Meta Berghauer Pont, Lars Marcus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Neville Mars (MARS Architects), 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Winy Maas (MVRDV)

● 카탈로그 디자인 제작: SPACE (편집장 박성진, 편집 박계현, 디자인 최승태)

● 카탈로그 한글 번역: 이종우

● 공개 포럼 공동기획: 정림건축문화재단 (박성태 국장)

● 후원 : 인스파이어 IR, 두오모, 엘지전자, 복순도가

● 지도 자료 제공: 삼아항업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이영주 과장 (02-760-4604/[young.lee@arko.or.kr](mailto:young.lee@arko.or.kr))  
2016년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전시추진단 정다운 사무국장  
(02-6490-2774/[far.game.2016@gmail.com](mailto:far.game.2016@gmail.com))